

Economy Brief

시총 1조 달러 클럽과 투자사이클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 미국 마이크론 시총이 1조 달러를 상회함

미국 투자사이클은 이전과는 다른 강한 사이클을 유지 중임.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 투자는 물론 각종 설비투자 등 유형투자 사이클도 동반 랠리를 보여주고 있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투자 호황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국내 주가와 경기사이클에 여전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마이크론 시총 1조 달러와 투자 사이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이하 마이크론)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반도체 주가의 강한 랠리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주었다. 참고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마이크론은 12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고 올해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새롭게 가입한 기업은 월마트에 이어 마이크론이 두 번째다. 미국-이란간 전쟁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와 국제 금리 급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주가를 포함한 반도체지수가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이다.

실제로 당사의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 투자사이클은 이전과는 다른 강한 사이클을 유지 중이다.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 투자는 물론 각종 설비투자 등 유형투자 사이클도 동반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1>에서 보듯 미국 소비심리와 투자사이클(=항공기제조 비국방자본재 수주액)간 괴리 현상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지만 AI 보급확대와 AI 연관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투자사이클은 이례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흐름만 보면 90년 IT투자 붐과 유사한 투자사이클 혹은 IT 투자 사이클보다 강한 투자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자본재 주문 호조를 근거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투자사이클 호조를 뒷받침해주었다.

마이크론의 시총 1조 달러 가입과 더불어 긍정적 현상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CDS의 하향 안정세다. 통상적으로 국제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하이퍼스케일러의 CDS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이들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지출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확대가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CDS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우려가 진정되고 있다. 자본지출, 즉 투자지출에 대한 수익성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반도체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반기 미국 등 주요국의 투자사이클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발 반도체 업황 수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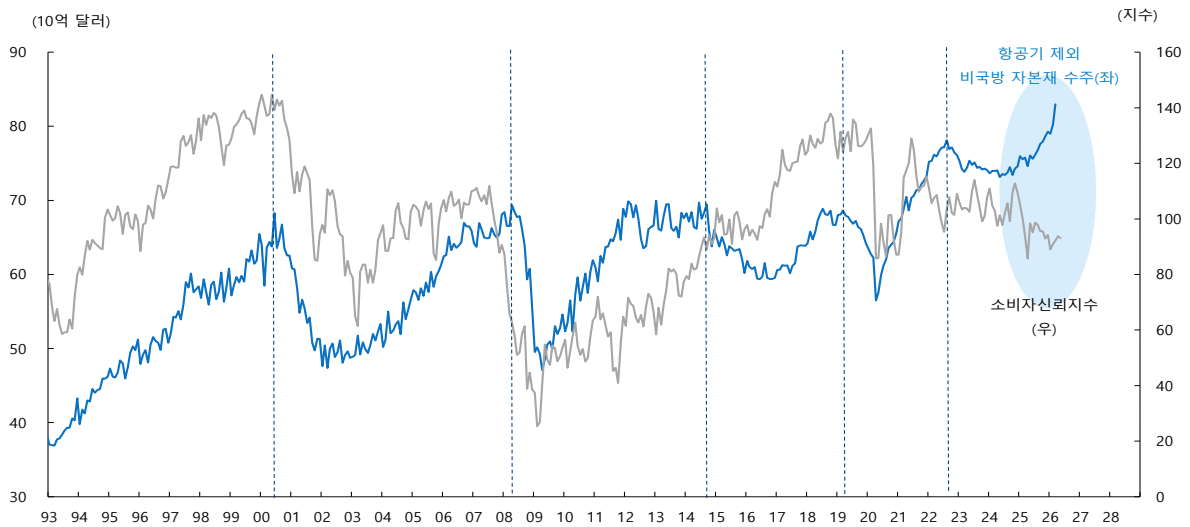
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기업 체감경기

고유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체감경기가 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2년 8월 이후 3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을 웃돌았다. 제조업 체감경기 개선을 주도한 것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이다. 제조업내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각각 103.4와 105.3로 올해 들어 낙관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대미국 수출은 물론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회복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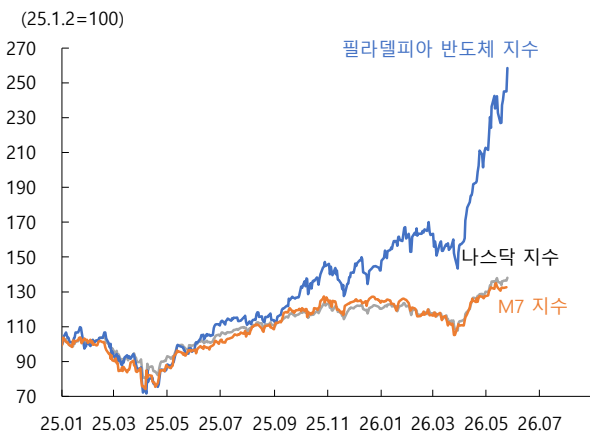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소비심리(CSI)와 기업체감지수(B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5.8p 상승한 97.5를 기록했다. 이란 전쟁 직전인 2월(9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와 고유가 충격 등으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5월 경제심리지수는 이러한 우려를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투자 호황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국내 주가와 경기사이클에 여전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종전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유가 하락은 글로벌 투자사이클에 또 다른 모멘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미국 소비심리와 투자사이클간 엇박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강한 투자사이클이 미국 경기와 주식시장을 견인 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목이 꺾일듯한(breakneck)’ 랠리를 보이고 있는 미국 반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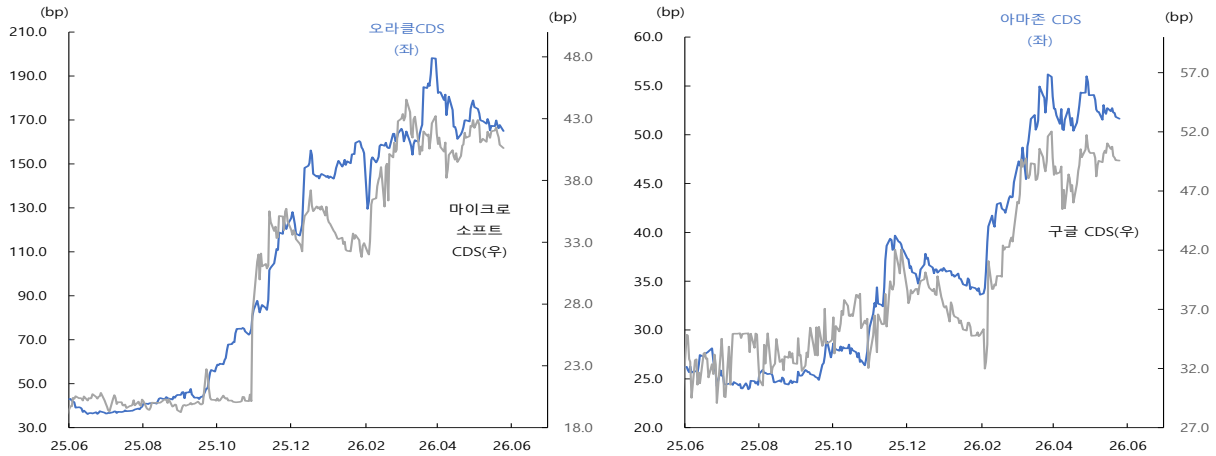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시총 1조 달러에 가입한 마이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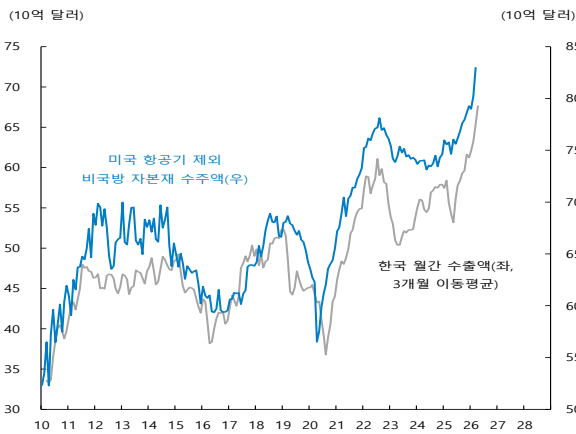


그림4. 국채 금리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CD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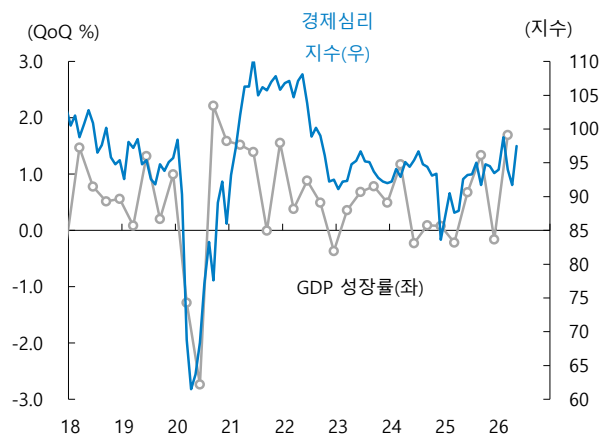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미국 투자사이클과 한국 수출 경기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5월 경제심리지수 반등은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양호할 수 있음을 시사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